

KT, 구리선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세계로 뻗는다

KT, 브로드밴드 포럼 참가

BBF, 기가와이어 부스 운영
관심 사업자 협력 논의 등 진행
광케이블 설치 어려운 건물에
초고속 인터넷 제공 기술 개발

KT는 20일까지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리는 브로드밴드포럼(BBF)에서 구리선 기반 10기가급 인터넷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BBF는 1994년 설립된 광대역 통신 개발 및 ITU 표준제정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다. AT&T, 보다폰 등 서비스 제공자 29개사와 인텔 등 제조사 77개사가 참여 중이며 분기별로 행사를 연다.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포럼은 BBF가 KT 기가와이어의 사업적, 기술적 우수성을 소개하기 위해 제안했으며 KT는 기술 홍보 및 사업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



이종필 KT 인프라 연구소 가입자망기술담당 상무가 브로드밴드포럼 기조연설에서 'G.hn의 거대한 도약-기가와이어 기술을 통한 동선 가치의 재발견'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KT

KT 인프라 연구소 가입자망기술담당 이종필 상무는 BBF 기조 연설에서 'G.hn의 거대한 도약·기가와이어 기술을 통한 동선 가치의 재발견'을 주제로 기가와이어 글로벌 사업 현황과 구리선 기반 10기가급 인터넷 등 차세대 기가와이어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BBF는 행사 기간 중 기가와이어 시

연 부스를 운영해 ▲동선, 동축 기가와이어 및 UTP 기반 10기가급 인터넷 전송(5G-GES) 관련 장비 및 기술 소개 ▲기가와이어 핵심 기술인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기술 시연 ▲기가와이어 관심 사업자 대상 사업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첫날 행사를 마치고 BBF 회원사 관계자 약 50명은 KT 기가와이어 서비스

가 구현된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쇼핑몰을 방문해 기가와이어가 구리선을 통해 상용환경에서 기가급 속도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다.

2013년 정부의 '기가 인터넷 선도 시범사업' 일환으로 KT와 유비쿼스가 공동 개발해 상용화된 기가와이어는 광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기존 구리선을 활용해 기가급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제공 기술이다. 기가와이어는 국내뿐 아니라 터키, 말레이시아, 미국 보스턴, 보츠와나, 베트남, 필리핀 등에 수출되고 있다.

BBF CEO 로빈 머시는 "기가급 속도의 브로드밴드를 통한 경험의 질을 중요시 하는 산업의 움직임에 따라 사업자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진정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창조해내고 있으며, 광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종소

비자가 원하는 브로드밴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글로벌 홈네트워크의 표준으로서 G.hn은 고속인터넷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KT 글로벌사업개발본부장 김영우 상무는 "BBF 포럼에서 전세계 통신 전문가들로부터 기가와이어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인정 받았다"며 "세계 최초로 구리선 기반의 10기가급 솔루션을 확보해 지속적인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KT, 실제로로서 '5G-V2X' 기술 실증... 자율주행 눈앞에

(사물 간 양방향 통신기술)

기존 기술에 5G 접목... 문제점 극복

KT는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차량 사물 간 양방향 통신(5G-V2X) 기술을 실증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5G-V2X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전방주돌 경고, 보행자 경고 등의 시나리오를 검증했다. 차량은 5G 네트워크를 통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플랫폼과 연결해서 주행에 필요한

교통 정보를 전달 받는다.

C-V2X는 차량-차량, 차량-보행자, 차량-교통인프라 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달하는 기술이다.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차량 단말 간 직접 통신을 하기 때문에 통신 거리의 제약이 없고, 대용량의 메시지는 전송이 불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은 C-V2X 기술을 지원하지 않아 아직까지 차량과 보행자간 통신은 불가능하다.

5G-V2X는 C-V2X에 5G 통신 기

술을 접목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5G의 초저지연과 대용량 데이터 전송 특성을 이용해 통신 거리의 제약 없이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5G 통신을 이용해 보행자와 차량간의 통신도 가능하다. 우선 5G망을 통한 V2X 메시지를 이용한 차량 안전 위주의 기본 기능을 검증하고, 향후 영상 전송 등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 등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KT가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해 서울 강북 지역에서 5G-V2X 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KT



LG전자는 인도에 LCD 스크린을 설치하고 크리켓 월드컵을 함께했다. /LG전자

LG전자, 인도서 '크리켓 월드컵' 거리응원

대형 LED 스크린서 파키스탄전 방영

LG전자가 인도인들과 크리켓을 함께 즐겼다. LG전자는 16일(현지시간) 인도 구르가온 엠비언스몰에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크리켓 월드컵 2019' 인도와파키스탄전을 방영했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는 인도 진출 22주년을 맞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올레드 사이니지 조형물 '올레드 랜드마크'가 설치된 중앙 광장에 자리를 잡았으며, 1000여

명 시민들이 함께했다.

크리켓 월드컵은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영구에서 열리는 행사다. 크리켓이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스포츠인 만큼, 현장 열기도 뜨거웠다.

LG전자는 행사 한켠에 체험형 전시 공간을 운영해 오랜 시간 경기가 이어지는 크리켓 경기의 지루함을 덜어줬다. 올레드 TV와 오디오 엑스북, 실링 팬 등이 인도 현지 소비자들과 만났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단독질주'

점유율 40%... 매출액 34억달러

2위권 '日 JDI vs 中 BOE' 격전

삼성전자가 올레드 우위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단, 중국 업체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17일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1분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 매출액 34억5396만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40.2%에 달했다. 2위인 채판디스플레이(JDI, 12.3%)를 밀찌감치 따돌린 성적이다. 2017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40% 이상 점유율을 이어갔으며, 2분기

에도 42.5% 점유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하위권에서는 각축전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중국 BOE가 점유율 11.9%로 전년(6.5%)대비 2배나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 중국 텐마도 점유율을 8.1%로 크게 늘렸다.

JDI 사정도 나쁘다. 일본 최대 LCD 패널 업체로 사업을 이어왔지만, 최근 중국 추격에 구조조정까지 몰렸다.

이에 따라 2분기에는 BOE와 텐마가 각각 15.1%, 11.0%로 성장을 이어가면서 JDI를 누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IHS마킷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시장 중위권 경쟁이 올레드 패널 확대에 따른 현상으로 봤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프리미엄 브랜드뿐 아니라 화웨이와 비보, 오포 등 중국 브랜드도 올레드를 확대하면서, 올레드 생산 능력이 성패를 가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마트폰용 올레드 출하량은 1분기 9077만개에서 2분기 1억981만개로 2배 이상 성장하고, 3분기에도 12억2164만개로 늘 것이라고 IHS마킷은 내다봤다.

실제로 BOE는 스마트폰용 올레드 시장을 8.3% 점유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3.0%)보다 크게 앞섰다. 삼성전자는 86.5%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OLED.

/삼성디스플레이